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2015년 6월 13일에 실시된 서울시 9급 사회는 기존 공무원 사회 시험의 일반적인 출제 비중과 달리 경제 8문제, 법과정치 6문제, 사회문화 6문제로 경제의 출제 비중이 많아 난이도가 높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2015년 서울시 사회는 작년 2014년 서울시 사회의 난이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경제의 경우, 문항 자체의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니었으나 시간 배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며, 표나 그림으로 제시된 문항이 많아 문항 해석에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바이블이나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등에서 제시된 적이 있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반복적으로 문제를 해석해 본 수험생들은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법과정치의 경우, 선택지를 꼼꼼히 분석하여야 하는 문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함정에 빠지기 쉬운 선택지가 있어 풀이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문화의 경우,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904 기본서로 충실히 공부했을 경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시험도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기출문제를 통한 개념 적용, 반복적인 문제풀이 연습이 점수를 획득하는데 가장 중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시험으로 실망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문항	영역	개념서 단위	세부 주제
1	사회문화	[2권] 49. 사회 계층과 사회 이동	사회 이동
2	사회문화	[1권] 24. 문화와 사회 (1)	문화 이해의 태도
3	경제	[1권] 14. 실업	고용 통계의 이해
4	경제	[1권] 05. 기업의 경제 활동	생산 가능 곡선
5	경제	[1권] 07. 수요와 공급	시장 균형의 변동
6	경제	[1권] 08.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
7	경제	[1권] 13. 물가와 인플레이션	명목 GDP와 실질 GDP
8	경제	[1권] 18. 환율과 국제 수지	국제 수지표
9	경제	[1권] 17. 무역 원리와 무역 정책	관세 부과 효과
10	경제	[1권] 17. 무역 원리와 무역 정책	비교 우위
11	법과정치	[2권] 34. 국회	법률안 가결률
12	법과정치	[2권] 30. 정치 참여와 선거	우리나라의 선거
13	법과정치	[2권] 45. 국제 사회와 국제법	국제연합
14	법과정치	[2권] 38. 불법행위책임과 개인간 분쟁해결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15	법과정치	[2권] 41. 부동산 거래와 무체 재산권	임대차 보호법
16	법과정치	[2권] 42. 범죄의 성립과 형사 절차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17	사회문화	[2권] 46. 사회·문화 현상과 연구 방법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18	사회문화	[2권] 50. 사회 문제와 일탈 행동	일탈 행위
19	사회문화	[1권] 20.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사회 집단
20	사회문화	[2권] 49. 사회 계층과 사회 이동	사회 불평등

• 2015년 서울시 사회 가답안 ㉠책형 •

1	④	2	①	3	④	4	②	5	③
6	④	7	②	8	①	9	③	10	②
11	①	12	②	13	③	14	④	15	④
16	②	17	③	18	②	19	③	20	④

• 2015년 서울시 사회 가담안 ㉓책형 •

1	①	2	②	3	③	4	④	5	④
6	②	7	③	8	②	9	③	10	④
11	④	12	①	13	④	14	②	15	③
16	④	17	②	18	①	19	③	20	②

01 다음 표는 갑국의 세대 간 계층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부모 \ 자녀	상층	중층	하층	합계
상층	2명	3명	5명	10명
중층	10명	25명	35명	70명
하층	3명	7명	10명	20명
합계	15명	35명	50명	100명

- ① 갑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인구가 대물림 인구보다 많다.
- ② 부모와 같은 계층인 자녀의 수는 하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 ③ 세대 간 이동은 상승 이동보다 하강 이동이 많다.
- ④ 자녀 계층보다 부모 계층에서 안정적인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사회 이동

- 해설** ① | ○ | 갑국의 세대 간 대물림 인구는 37명(2명+25명+10명)이다. 이에 비해 세대 간 인구 이동은 63명(100명-37명)이다. 따라서 갑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인구가 대물림 인구보다 많다.
- ② | X | 부모와 같은 계층인 자녀의 수는 상층이 2명, 중층이 25명, 하층이 10명이다. 따라서 부모와 같은 계층인 자녀의 수는 중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 ③ | X | 세대 간 상승 이동은 43명(3명+5명+35명)이며, 세대 간 하강 이동은 20명(10명+3명+7명)이다. 따라서 세대 간 이동은 상승 이동보다 하강 이동이 적다.
- ④ | X | 자녀 계층은 다이아몬드형 구조이고, 부모 계층은 피라미드형 구조이다. 따라서 자녀 계층이 부모 계층보다 안정적인 계층 구조이다.

참고

사회 이동

분류 기준	분류	내용
이동 방향	수직 이동	계층적 지위의 상승이나 하강 이동
	수평 이동	동일한 계층 내에서의 이동
이동 범위	세대 간 이동	부모와 자녀 간에 나타나는 계층 이동
	세대 내 이동	개인의 일생 동안 나타나는 계층 이동
이동 원인	개인적 이동	주어진 계층 구조 내에서 개인의 노력에 의한 계층 이동
	구조적 이동	사회 변동으로 계층 구조가 변함에 따라 나타나는 계층 이동

▶ ①

- 02 인간의 문화를 연구할 때,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아래의 표에서 문화의 이해 태도인 A~C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A, B, C는 각각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의 하나이다.)

질문 \ 태도	A	B	C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가?	예	아니요	아니요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가?	아니요	예	아니요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예	예	아니요

- ㄱ. A는 선진 문물의 수용에 기여할 수 있고, 자기 문화의 낙후성을 개선할 수 있다.
 ㄴ. B는 19세기 서구 열강들의 서구 중심적 가치관으로 문화적 마찰 발생 가능성이 있다.
 ㄷ. C는 타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ㄹ. 문화 이해 태도로 A관점은 C관점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문화가 존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ㄹ

④ ㄴ, ㄷ, ㄹ

문화 이해의 태도

해설 A는 문화 상대주의, B는 자문화 중심주의, C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 ㄱ. | ○ | 문화 상대주의(A)는 선진 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이므로, 자기 문화의 기술적 진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 ㄴ. | ○ | 자문화 중심주의(B)는 19세기 서구 제국주의 국가에 일반적으로 발견되었으며, 타문화와의 문화적 마찰을 가져오는 단점이 있다.
- ㄷ. | ○ | 문화 상대주의(C)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기여한다.
- ㄹ. | X | 문화 상대주의(C)는 문화를 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본다. 따라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배하는 문화가 아닌 한 문화를 역사적, 환경적 맥락에서 이해하려 한다. 문화 상대주의(A)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화 상대주의(C) 관점을 가진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문화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고

문화 이해의 태도

자문화 중심주의	자기 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워 타문화를 평가 절하하는 태도
문화 상대주의	타문화를 동경하거나 추종한 나머지 자기 문화를 평가 절하하는 태도
문화 상대주의	문화를 우열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간주하며, 각 문화가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갖는 고유한 의미를 존중하려는 태도

▶ ②

03 표는 갑국의 경제 활동 인구에 관한 통계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실업자 수
2009년	30,000명	20,000명	1,000명
2014년	35,000명	21,000명	3,000명

* 경제 활동 참가율=(경제 활동 인구/15세 이상 인구)×100

** 고용률=(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100

- ① 2009년보다 2014년에 실업률이 더 낮다.
- ② 2009년보다 2014년에 취업자가 더 많다.
- ③ 2009년보다 2014년에 고용률이 더 낮다.
- ④ 2009년 대비 2014년 실업자 증가율이 취업자 증가율보다 낮다.

고용 통계의 이해

해설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성된다.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의 합이다. 따라서 갑국의 2009년 취업자 수는 19,000명, 2014년의 취업자 수는 18,000명임을 알 수 있다.

- ① | X |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실업자/경제 활동 인구)×100'으로 구할 수 있다. 2009년의 실업률은 '(1,000명/20,000명)×100'으로 5%이고, 2014년의 실업률은 '(3,000명/21,000명)×100'으로 약 14%이다. 따라서 2009년보다 2014년에 실업률이 더 높다.
- ② | X | 2009년의 취업자 수는 19,000명이고, 2014년의 취업자 수는 18,000명이다. 따라서 2009년보다 2014년에 취업자가 더 적다.
- ③ | ○ |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취업자/15세 이상 인구)×100'으로 구할 수 있다. 2009년의 고용률은 '(19,000명/30,000명)×100'으로 약 63%이고, 2014년의 고용률은 '(18,000명/35,000명)×100'으로 약 51%이다. 따라서 2009년보다 2014년에 고용률이 더 낮다.
- ④ | X | 2009년 대비 2014년의 실업자는 증가(1,000명 → 3,000명)했으나, 취업자는 감소(19,000명 → 18,000명)했다.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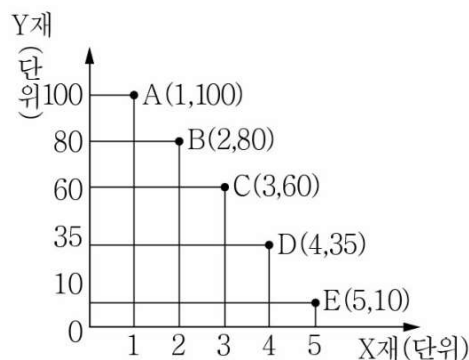
■ 각종 고용 지표

구분	의미	계산
경제 활동 참가율(%)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 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frac{\text{경제 활동 인구}}{\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실업률(%)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frac{\text{실업자}}{\text{경제 활동 인구}} \times 100$
취업률(%)	경제 활동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frac{\text{취업자}}{\text{경제 활동 인구}} \times 100$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frac{\text{취업자}}{\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 ③

0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E는 갑국이 보유한 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최대 생산량의 조합을 나타낸다. (단, 갑국은 X재와 Y재, 두 재화만 생산한다.)



- ① X재와 Y재 생산에 자원이 고르게 배분된 C가 A보다 효율적이다.
- ② X재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B에서 C로 이동할 때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보다 크다.

- ③ B에서 A로 이동할 때, Y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X재 1단위이다.
 ④ Y재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C에서 B로 이동할 때가 D에서 C로 이동할 때보다 더 크다.

생산 가능 곡선

해설 생산 가능 곡선은 주어진 자원과 기술 수준하에서 두 재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상품들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이다. 그림에서 A~E는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조합을 의미한다.

- ① | X |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는 조합은 모두 효율적인 생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한, 생산 가능 곡선상의 한 조합이 다른 조합보다 더 효율적이라도 판단하기 어렵다.
 ② | X | X재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B에서 C로 이동할 때 X재 1단위에 대해 Y재 20단위, A에서 B로 이동할 때 X재 1단위에 대해 Y재 20단위이다. 따라서 X재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B에서 C로 이동할 때와 A에서 B로 이동할 때가 동일하다.
 ③ | X | B에서 A로 이동할 때, Y재 20단위를 추가 생산하기 위해 X재 1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Y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X재 1/20단위이다.
 ④ | O | C에서 B로 이동할 때, Y재 20단위를 추가 생산하기 위해 X재 1단위를 포기해야 하므로, Y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X재 1/20단위이다. D에서 C로 이동할 때, Y재 25단위를 추가 생산하기 위해 X재 1단위를 포기해야 하므로, Y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X재 1/25단위이다. 따라서 Y재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C에서 B로 이동할 때가 D에서 C로 이동할 때보다 더 크다.

▶ ④

0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A재와 B재는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이며, A재와 C재는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이다.
- 최근 A재의 부품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 A재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고, B재와 C재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

- ① B재의 거래량은 증가한다.
 ② C재의 가격은 하락한다.
 ③ A재와 B재의 가격은 모두 상승한다.
 ④ A재의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시장 균형의 변동

해설 • A재의 부품 가격의 하락은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공급 증가)시켜 A재의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A재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은 비탄력적인 재화로 가격이 하락하면 판매 수

입은 감소한다.

- B재는 A재와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이다. A재 가격이 하락하면 A재의 수요량이 증가하고, 대체재인 B재의 수요는 감소한다. 이에 B재의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며,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관계 없이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 C재는 B재와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이다. B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B재의 수요량이 증가하고, 보완재인 C재의 수요는 증가한다. 이에 C재의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며,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관계 없이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 ① | X | B재의 거래량은 감소한다.
- ② | X | C재의 가격은 상승한다.
- ③ | X | A재와 B재의 가격은 모두 하락한다.
- ④ | ○ | A재의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참고

시장 균형의 변동

구분		변동 원인
수요	증가	소득의 증가(단, 정상재), 대체재의 가격 상승, 보완재의 가격 하락, 기호(선호)의 증가, 미래 가격 상승 예상, 수요자 수(인구)의 증가
	감소	소득의 감소(단, 정상재), 대체재의 가격 하락, 보완재의 가격 상승, 기호(선호)의 감소, 미래 가격 하락 예상, 수요자 수(인구)의 감소
공급	증가	생산 요소 가격 하락, 생산 기술의 발전, 공급자 수의 증가, 미래 가격 하락 예상, 기업가의 낙관적 경기 전망, 정부의 보조금 지급
	감소	생산 요소 가격 상승, 생산 여건의 악화, 공급자 수의 감소, 미래 가격 상승 예상, 기업가의 비관적 경기 전망, 정부의 세금 부과(판매세율 인상)

▶ ④

- 06 다음 표는 A~D재의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1% 인상될 경우 수요량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재화	A재	B재	C재	D재
수요량 변화율(%)	-0.5	0	-1	1

- ① A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 ② B재의 판매량이 변하지 않는다.
- ③ C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다.
- ④ D재는 판매 수입이 변하지 않는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

해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공식은 '수요량의 변동률(%)÷가격의 변동률(%)'이다. 주어진 내용을 넣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가격 변화	수요량 변화율	계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
A재	1% 인상	-0.5%	$\left \frac{-0.5}{1} \right = 0.5$	비탄력적 ($E_d < 1$)
B재	1% 인상	0%	$\left \frac{0}{1} \right = 0$	완전 비탄력적 ($E_d = 0$)
C재	1% 인상	-1%	$\left \frac{-1}{1} \right = 1$	단위 탄력적 ($E_d = 1$)

- ① | X | A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② | O | B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다. B재는 가격이 상승해도 수요량이 변화하지 않으므로, B재의 판매량은 변하지 않는다.
 ③ | X | C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단위 탄력적이다.
 ④ | X | D재는 가격과 수요량이 정(+)의 관계에 있으므로 수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재화이다. D재는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므로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참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 간의 관계

탄력성	완전 비탄력적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	탄력적	완전 탄력적
가격 상승	가격 상승률만큼 판매 수입 증가	판매 수입 증가	판매 수입 불변 (정액 구매)	판매 수입 감소	판매 수입 없음.
가격 하락	가격 상승률만큼 판매 수입 감소	판매 수입 감소		판매 수입 증가	판매 수입 무한 증가

▶ ②

07 다음 표는 A국의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 지수는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명목 GDP	400억 달러	400억 달러	400억 달러
실질 GDP	300억 달러	400억 달러	500억 달러

* GDP 디플레이터=(명목 GDP/실질 GDP)×100

- ① 2011년의 물가 지수는 75이다.
 ② 2012년의 물가는 전년도와 같다.
 ③ 2013년의 물가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했다.
 ④ 2012년과 2013년의 물가 상승률은 같다.

명목 GDP와 실질 GDP

해설 A국의 GDP 디플레이터와 물가 상승률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명목 GDP (억 달러)	400	400	400
실질 GDP (억 달러)	300	400	500
GDP 디플레이터	$\frac{400}{300} \times 100 = \text{약 } 133$	$\frac{400}{400} \times 100 = 100$	$\frac{400}{500} \times 100 = 80$
물가 상승률	—	$\frac{100 - 133}{133} \times 100 \approx -25$	$\frac{80 - 100}{100} \times 100 = -20\%$

* 물가 상승률=(금년(월) 물가 지수-전년(월) 물가 지수)÷전년(월) 물가 지수×100

- ① | X | 2011년의 물가 지수(GDP 디플레이터)는 약 133이다.
 ② | X | 2012년의 물가(100)는 전년도인 2011년의 물가(약 133)에 비해 하락했다.
 ③ | ○ | 2013년의 물가(80)는 전년도인 2012년의 물가(100)에 비해 하락했다.
 ④ | X | 2012년의 물가 상승률은 약 -25%이고, 2013년의 물가 상승률은 -20%이다. 따라서 2012년과 2013년의 물가 상승률은 다르다.

참고

I 명목 GDP와 실질 GDP

명목 GDP = 실질 GDP	GDP 디플레이터 = 100
명목 GDP > 실질 GDP	• GDP 디플레이터 > 100 • 기준 연도에 비해 물가 상승
명목 GDP < 실질 GDP	• GDP 디플레이터 < 100 • 기준 연도에 비해 물가 하락

▶ ③

08 다음 표는 우리나라의 국제 수지 중 경상 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에 해당하는 사례 중 옳지 않은 것은?

구분	외화 수취	외화 지급
경상 수지	상품 수지	㉠
	서비스 수지	㉡
	본원 소득 수지	㉢
	이전 소득 수지	㉣

- ① ㉠ - 국내 김 생산 업체가 일본에 김을 수출하고 대금을 받았다.
 ② ㉡ - 외국계 금융 회사의 한국 금융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③ ㉢ - 네팔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자신이 받은 급여를 송금하였다.
 ④ ㉣ - 국내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후원금을 보냈다.

국제 수지표

- 해설** ① | ○ | 국내 김 생산 업체가 일본에 김을 수출하고 대금을 받은 것은 상품 수지의 외화 수취에 해당한다.
 ② | X | 외국계 금융 회사의 한국 금융 시장 진출은 금융 계정의 외화 수취에 해당한다.
 ③ | ○ | नेपाल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의 가족에게 자신이 받은 급여를 송금한 것은 본원 소득 수지의 외화 지급에 해당한다.
 ④ | ○ | 국내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것은 이전 소득 수지의 외화 지급에 해당한다.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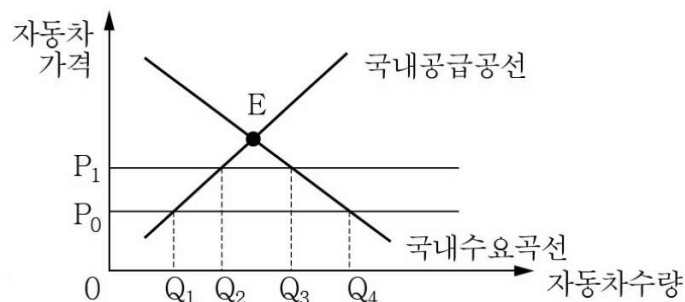
국제 수지표

경상 수지	상품 수지	재화의 수출입 거래 실적을 기록함.
	서비스 수지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실적을 기록함.
	본원 소득 수지	근로 소득 및 투자 소득의 대외 거래 실적을 기록함.
	이전 소득 수지	대가 없이 주고받는 이전 거래 내역을 기록함.
자본·금융 계정	자본 수지	자본 이전 및 비생산·비금융 자산의 거래 실적을 기록함.
	금융 계정	투자 및 차관 거래, 준비 자산 증감 등의 거래 실적을 기록함.

▶ ②

09 다음 상황에서 관세 부과 후에 예상되는 갑국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를 자유 무역으로 수입하고 있던 갑국에서 단위당 $P_1 - P_0$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관세 부과 전 자동차의 국제 가격은 P_0 였다. 이 나라는 국제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자동차는 국제 가격으로 이 나라에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



- ① 자동차의 국내 생산량은 Q_2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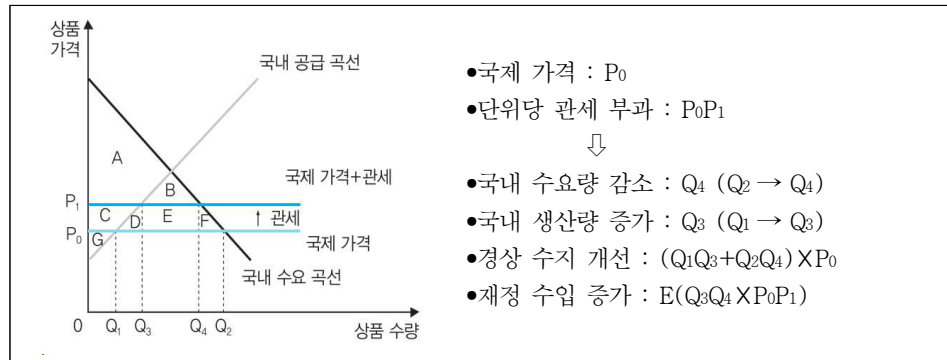
- ② 자동차의 국내 수요량은 Q_3 이다.
- ③ 정부의 관세 수입은 $P_1 \times (Q_3 - Q_2)$ 이다.
- ④ 자동차의 국내 생산량이 $Q_2 - Q_1$ 만큼 증가한다.

관세 부과 효과

- 해설**
- ① | ○ | 관세 부과로 자동차의 국내 생산량은 증가($Q_1 \rightarrow Q_2$)한다. 따라서 자동차의 국내 생산량은 Q_2 이다.
 - ② | ○ | 관세 부과로 자동차의 국내 수요량은 감소($Q_4 \rightarrow Q_3$)한다. 따라서 자동차의 국내 생산량은 Q_3 이다.
 - ③ | X | 정부의 관세 수입은 $(P_1 - P_0) \times (Q_3 - Q_2)$ 이다.
 - ④ | ○ | 관세 부과로 국내 생산량은 $Q_2 - Q_1$ 만큼 증가한다.

참고

관세 부과 효과



▶ ③

- 10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이 노동 1단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필요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고, 양국이 보유한 노동의 양은 같다.)

국가 \ 재화	X재	Y재
갑국	5개	5개
을국	4개	2개

- ① 갑국은 X재 생산에, 을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 ② 을국에서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2개이다.
- ③ Y재 1개를 더 생산할 때 포기해야 하는 X재는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 ④ 양국이 비교 우위 재화를 특화하여 무역을 할 때, 양국의 특화 상품 1개의 소비의 기회비용은 무역 이전보다 커진다.

비교 우위

해설 ▶ 갑국과 을국의 X재와 Y재의 1개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
갑국	Y재 1개	X재 1개
을국	Y재 1/2개	X재 2개

따라서 갑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고, 을국은 X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 ① | X |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이 작은 쪽에 있다.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 Y재 1개, 을국 Y재 1/2개이므로 을국에 비교 우위가 있다. 반면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 X재 1개, 을국 X재 2개이므로 갑국에 비교 우위가 있다. 따라서 갑국은 Y재 생산에, 을국은 X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 ② | X | 을국에서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1/2개이다.
- ③ | X | Y재 1개를 더 생산할 때 포기해야 하는 X재는 갑국 1개, 을국 2개로, 갑국이 을국보다 작다.
- ④ | ○ | 갑국이 Y재, 을국이 X재를 특화하여 무역을 할 경우, 갑국은 Y재 1개에 대해서 X재 1개 이상을, 을국은 X재 1개에 대해서 Y재 1/2개 이상을 받아야 교역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다. 이처럼 특화 상품을 교역하면 그에 대한 1단위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이전보다 커지게 되는데, 이는 상대국과의 교역이 이익이 됨을 의미한다. 즉, 양국이 비교 우위 재화에 특화하게 되면, 특화 상품을 더 많은 상대국 상품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하게 되므로 특화 상품 1개의 소비의 기회비용은 무역 이전보다 커진다.

▶ ④

- 11 다음 표는 갑국의 법률 발의안 가결률과 여당 의석률을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가결률은 소수점 이하 생략, (가결수/발의수)×100=가결률)

시기(국회)	항목	정부 제출 발의안		국회 제출 발의안		여당 의석률(%)
		발의수	가결률(%)	발의수	가결률(%)	
19대		13,985	42	9,542	46	44
20대		16,542	39	10,867	51	46
21대		18,252	58	12,479	54	52

- ① $\neg$, $\perp$
② $\neg$, $\perp$, $\exists$
- ③ $\perp$, $\sqsubset$, $\exists$
④ $\perp$, $\exists$

법률안 가결(국회)

- 해설** ㄱ. | X | 여당의 의석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지만(44% → 46% → 52%),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은 20대에 오히려 줄어든다(42% → 39% → 58%). 따라서 여당 의석률이 높아질수록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ㄴ. | ○ | 20대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수는 약 6,451건($16,542 \times 0.39$)이며, 국회 제출 발의안의 가결수는 약 5,542건($10,867 \times 0.51$)이다. 따라서 20대에서는 국회 제출 발의안 가결수보다 정부 제출 발의안 가결수가 많다.

ㄷ. | X | 갑국은 19대와 20대 여당의 의석률이 과반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전형적 의원 내각제 정부라고 할 수 없다.

ㄹ. | ○ | 여대야소의 경우는 21대, 여소야대인 경우는 19대와 20대이다. 21대의 경우 다른 시기에 비해 정부 제출 발의안의 가결률이 58%로 높다.

► ④

12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서초구의 지방 의회 의원 선거는 소수 대표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 ②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선거 등 대부분의 선거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 ③ 서울시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1인 1표제와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병행하고 있다.
- ④ 모든 선거의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는 동일하게 4년이다.

우리나라의 선거

- 해설** ① | ○ | 서초구는 기초 자치 단체에 해당하며 기초 의회 의원 선거는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소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 ② | X | 우리나라는 기초 의회 의원 선거를 제외하고,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 ③ | X | 지방 의회는 1인 2표제로 인물에 대한 투표와 정당에 대한 투표를 병행하고 있다.
- ④ | X | 대통령의 경우 임기가 5년이다.

참고

■ 우리나라의 선거

구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선출 직명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자치구·시·군 의장	시·도 의회 의원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임기	5년	4년	4년	4년	4년	4년	4년
선거 구제 대표제	전국단위 다수대표제	• 지역구: 소 선거구 다수 대표제 • 전국구: 전국단위 비례 대표제	시·도 단위 다 수 대표 제	자치구·시·군 단위 다 수 대 표제	• 지역구: 소 선거구 다수 대표제 • 비례 대표 : 시·도 단위 비례 대표제	• 재역구 : 중 선거구 소수 대표제(2~4) • 비례 대표 : 자치구·시·군 단위 비례 대 표제	시·도 단위 다수 대표제
정당공천	허용	허용	허용	허용	허용	허용	
기탁금	3억 원	1,5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300만원	200만 원	5,000만 원

▶ ①

13 다음은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이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A : 안전 보장 이사회
- B : 국제 사법 재판소

- ① A의 상임 이사국에게 거부권이 존재하는 것은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 ② A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로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이 존재한다.
- ③ B의 판결 내용은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 보장 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 ④ B는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으로 가맹국만을 대상으로 하며 비가맹국은 재판의 당사국이 될

수 없다.

국제 연합

- 해설** ① | ○ | 안전 보장 이사회(A)의 상임 이사국에게 거부권이 존재하는 것은 강대국의 힘을 인정하는 것으로 현실주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 ② | ○ | 안전 보장 이사회(A)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이루어진다.
- ③ | ○ | 국제 사법 재판소(B)의 판결을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 X | 국제 사법 재판소(B)는 국제 연합 가맹국 이외의 국가도 재판의 당사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④

14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행위에 ㉠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 책임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재산적, 정신적으로 배상을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 다른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 ㄱ.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ㄴ. 민법상 책임 능력은 의사 능력을 책임 측면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의사 능력보다 약간 높은 정신 능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 ㄷ. 민법에서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ㄹ. 특수 불법 행위의 유형으로 공동 불법 행위 책임, 고용 관계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등이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ㄷ, ㄹ

불법 행위와 손해 배상

- 해설** ㄱ. | ○ |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과실은 언제나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
- ㄴ. | ○ | 책임 능력은 의사 능력을 불법 행위의 면에서 고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책임 능력은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민법」 제753조). 판례는 대체로 15세부터 책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ㄷ. | ○ | 민법상 손해 배상은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경우에도 손해 배상이 인정된다.
- ㄹ. | X | 미성년자의 경우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 감독자 책임이 발생한다.

▶ ②

15 다음은 법률 상담의 내용이다. 법적 조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는 이번에 회사 사무실이 이전하면서 회사 근처에 있는 집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전세 대란으로 집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회사 근처에 적당한 집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처음인데,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군요.

【 을 구 】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1	저당권 설정	2015년 3월 5일 제 〇〇〇〇호	... 계약	채권 최고액 금 □□원 채무자 갑 저당권자 A은행(이하 생략)

- ① 철수 : 임대차 기간은 보통 2년으로 정하며 입주와 전입 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 ② 영희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③ 지우 : 확정 일자를 받아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어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④ 유경 :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경매가 집행되더라도 임차 보증금의 일부 금액에 대하여 최우선 지급됩니다.

주택 임대차

- 해설** ① | ○ | 임대차 기간은 통상적으로 2년으로 정한다.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 신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 ② | ○ | 임대차 이전 이미 A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 보증금의 모두를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③ | X | 확정 일자를 받을 경우 후순위에 대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 ④ | ○ | 소액 임차인의 경우 임차 보증금의 일부 금액에 대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

■ 주택 임대차

임차권의 대항력	대항 요건	주택의 인도 + 주민 등록(전입 신고 다음날 효력)
	대항력	임대차 기간 동안 사용·수익 보장 + 양수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 변제권	요건	대항 요건 +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 일자
	효과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에 대한 우선 변제권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요건	대항 요건
	효과	소액 보증금 중 일부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

▶ ③

16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실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가, 그 기간에 다른 범행이 없으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실형을 집행하지 않는 제도이다.
- ㉡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 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 ① ㉠에는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감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 ② ㉡은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 내려진다.
- ③ ㉠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며, ㉠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은 선고의 효력을 잃는다.
- ④ ㉡은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고 1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행 유예와 선고 유예

해설 ㉠은 집행 유예, ㉡은 선고 유예이다.

- ① | ○ | 형법 제62조의 2(보호 관찰, 사회봉사·수감 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할 수 있다.
- ② | ○ | 형법 제59조(선고 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 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③ | ○ | 형법 제62조(집행 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 X | 형법 제60조(선고 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17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근 ㉠ 비가 내리지 않는 ㉡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 나들이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 ① ㉠의 현상은 불가치적이다.
- ② ㉡의 현상은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 ③ ㉢의 현상은 개연적이고 확률적이다.
- ④ ㉠, ㉡과 같은 현상에 의해 ㉢의 현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해설 ㉠, ㉡은 자연 현상, ㉢은 사회·문화 현상에 해당한다.

- ① | ○ | 자연 현상은 불가치적이다.
- ② | X |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이다.
- ③ | ○ |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과 확률의 법칙에 의한다.
- ④ | ○ |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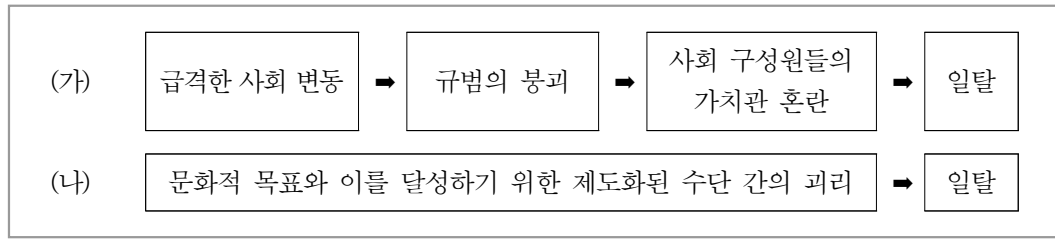
참고

■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구분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의미	인간의 의지와 무관, 자연 법칙에 따른 현상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모든 현상
특성	불가치성, 보편성	가치 함축성, 특수성과 보편성
지배 법칙	존재 법칙, 인과 법칙, 필연 법칙, 확실성의 원리	당위 법칙, 목적 법칙, 개연성, 확률성의 원리

▶ ②

18 다음은 일탈 이론에 대한 도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가)와 (나)의 입장은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② (가)는 지배 집단이 정해 놓은 규범에 상충되는 행위가 일탈 행동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③ (나)는 일탈 행위자와의 접촉을 통해 사회화된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④ (가)와 달리 (나)는 일탈의 원인을 아노미로 본다.

일탈 행위

해설 (가)는 뒤르켐의 아노미, (나)는 머튼의 아노미에 해당한다.

- ① | ○ | 아노미론은 기능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② | X | 지배 집단이 정해 놓은 규범에 상충되는 행위가 일탈 행동이 된다고 보는 입장은 갈등론에 해당한다.
 ③ | X | 일탈자와의 접촉을 통해 사회화된 일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이다.
 ④ | X | (가)와 (나) 모두 아노미론이다.

참고

일탈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

아노미론	•뒤르켐 : 사회의 규범이 약화되거나 부재할 때,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된 규범이 동시에 존재할 때 발생 •머튼 : 문화적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제도적 수단 사이에 괴리가 생긴 상태
차별적 교제 이론	•일탈을 일삼는 개인이나 집단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일탈 행위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이론 •해결 : 일탈자 또는 일탈 집단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격리함으로써 일탈의 학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
낙인 이론	•1차적 일탈의 발생 → 주위 사람들이 계속하여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낙인) → 스스로를 일탈자라고 인식 → 일탈 행위를 계속함(2차적 일탈) •일탈을 규정짓는 객관적인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함. •대책 : 타인에 대한 신중한 낙인이 필요함.

▶ ①

1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우는 ㉠ 광고 홍보학과 진학을 꿈꾸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포기하고 ㉡ 의과 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광고 홍보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하고 ㉢ 광고 홍보 동아리에 가입하여 의학 공부보다는 동아리 활동에 열중했다. 결국 지우는 의학 공부를 포기하고 광고 홍보학과로 편입하여 ㉣ 광고 홍보 회사에 취직하였다.

- ① ㉠은 지우의 내집단이다.
 ② ㉡은 이익 사회이자 1차 집단이다.
 ③ ㉠과 ㉢은 지우의 준거 집단이다.
 ④ ㉣은 결합 의지에 따른 구분에 의하면 본질적 의지에 의해 형성된 집단이다.

사회 집단

- 해설** ① | X | 광고 홍보학과(㉠)는 지우의 현재 내집단이 아니다.
 ② | X | 의과 대학(㉡)은 이익 사회이자 2차 집단이다.
 ③ | O | 광고 홍보학과(㉠)는 고등학교 시절, 광고 홍보 동아리(㉢)는 대학교 시절의 지우의 준거 집단이다.
 ④ | X | 광고 홍보 회사(㉣)는 인위적 선택 의지에 의한 이익 사회이다.

참고

사회 집단

-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하는 집단

학자	분류 기준	집단
쿨리	접촉 방식	1차 집단, 2차 집단
튀니스	결합 의지	공동 사회, 이익 사회
섬너	소속감	내집단, 외집단

준거 집단

의미	•한 개인이 자신의 신념, 태도, 가치 등을 규정하고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자 하는 집단 •개인의 판단이나 행동에 기준이 되는 집단
양상	•준거 집단 = 소속 집단 : 소속 집단에 만족감과 자부심, 강한 소속감 형성 •준거 집단 ≠ 소속 집단 : 소속 집단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거나 이탈 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함.

▶ ③

20 다음 표는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

로 옳은 것은? (단, 남성과 여성의 정규직 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남성	70%	75%	80%
여성	70%	80%	75%

- ① 여성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차이는 2013년이 2012년보다 적다.
- ② 남성의 경우, 전년대비 2013년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높다.
- ③ 2013년 여성의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2012년에 비하여 하락하였다.
- ④ 2013년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여성이 남성보다 적다.

사회 불평등(도표 해석)

해설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 비율은 ‘(비정규직 평균 임금/정규직 평균 임금)×100으로 구할 수 있다.

- ① | X | 여성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차이는 2013년이 2012년보다 많다. 예를 들어, 2012년 여성의 정규직 평균 임금이 100만 원, 여성의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80만 원이라면, 여성의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80%이다. 또 2013년 여성의 정규직 평균 임금이 200만 원, 여성의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150만 원이라면, 여성의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75%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차이는 2012년 20만 원에서 2013년 50만 원으로 2013년이 2012년보다 많다.
- ② | O | 남성의 경우,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2012년 75%에 비해 2013년 80%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정규직 평균 임금이 상승하였으므로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더 많이 상승하였을 것이다.
- ③ | X | 2013년 여성의 비정규직 평균 임금의 하락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분모(정규직 평균 임금)가 상승할 때 전체 분수(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 값이 하락한다면, 분자(비정규직 평균 임금)는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일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④ | X | 2013년 남녀의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확인할 수 없다. 주어진 자료는 남성과 여성의 정규직 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 임금을 나타낸 것으로, 구체적인 남성과 여성의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알 수 없다.

▶ ②